

# 대구대, '초국적 변혁으로서의 유학' 주제로 학술대회 열어

✎ 김원균 기자 | ㉠ 승인 2022.04.07 16:11

## 초국적 유학생의 유학 자본 활용 등 주제로 연구발표, 토론 진행

2022  
대구사학회 ·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공동국내학술대회(제161회 정기발표회)

### 초국적 변혁 으로서의 유학 : 유학경험의 자본화와 유학 정책

2022. 4. 8. (금) 10:00 ~ 15:00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1호관 1114호 세미나실  
ZOOM ID : 864 0931 8853

주최 :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주최 : 대구사학회,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후원 : 한국연구재단



시간	세부 일정
10:00 ~ 10:30	등록
10:30 ~ 10:40	개회식 [사회] 김정숙 (대구대) 개회사 : 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
10:40 ~ 12:00	제1세션 : 초국적 유학생의 유학 자본 활용 [좌장] 김정숙 (대구대) 제1발표: 이은주 (대구대) 중도탈락 귀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 연구 토론: 최보선 (영남대) 제2발표: 이지희 (대구대) 초국적 유학생의 언어 자본 활용 요구에 기반한 유학 정책 연구 유학생의 비합법 외국인 고숙련직업 시간제 취업 분야 제도권 중심으로- 토론: 김준수 (대구가톨릭대) 제3발표: 심희정 (전북대) 유학 자본, 그 기회와 한계 - 한국 기업에 적합한 이공계 유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김도애 (덕성여대)
12:00 ~ 13:00	오찬
13:00 ~ 14:50	제2세션 : 역사 속의 유학생과 유학 정책 [좌장] 신규환 (대구대) 제1발표: 권순홍 (대구대) 9세기 발해의 漢唐 유학과 고려 유학생 정책 토론: 권은주 (동북아역사재단) 제2발표: 심현우 (경희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립 교육기관 교원의 해외 유학 토론: 이형선 (조선대) 제3발표: 김형열 (동양대) 근대 중국 지식인의 日本留學과 문화 교류 - 리다자이(李大哲)의 사상 변화를 중심으로 - 토론: 손재현 (경북대) 제4발표: 이영민 (조선대) 정말 여성 유학생의 아시아주의 수용 양상 - 시모 우치(下田幸子)를 중심으로 - 토론: 박서진 (충남대)
14:50 ~ 15:00	종료



학술대회 안내 포스터. 사진=대구대 제공

[경산(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오는 8일 대구사학회와 공동으로 '초국적 변혁으로서의 유학: 유학경험의 자본화와 유학 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국내학술대회(제161회 정기발표회)를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대구사학회, 대구대 사범대학이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며 사범대학 1호관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열린다.

행사는 윤재운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세션에서는 '초국적 유학생의 유학 자본 활용'을 주제로 3명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역사 속의 유학생과 유학 정책'을 다루며 4명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연구자들은 그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발표 및 토론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유학 정책 개선에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8일 오전 10시 ZOOM에 접속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재운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유학 정책의 초국적 변혁의 의미를 현재와 과거라는 두 측면에서 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원균 기자 [kimonegyun@naver.com](mailto:kimonegyun@naver.com)